



일본/아스카무라

아스카무라는 ‘아스카 종합 박물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전체를 오픈 박물관으로 만들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감(五感)으로 아스카를 느끼는 서비스(역사적 콘텐츠와 ICT를 활용한 가상 아스카교, 농업에 관한 오너 제도 등)를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민가 체제 체험, 역사 문화 체험, 농사 체험 등을 일체적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아스카 뉴 투어리즘’은 지역 내 소비 증가 등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



총 관



구스미 도키오 니가타현 미쓰케시장

지방의 경제 진흥 상황과 놓여져 있는 입장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규모 기업 유치만이 지방의 생존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 확보를 포함해 지방의 경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몇몇 지방의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IT는 대도시에서 한정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인턴십 제도 등을 활용해 지방의 매력을 알리는 발상도 필요할 것이다. 거국적으로 지방에서 사는 가치관을 높여 나갔으면 한다.

고용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기업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회를 늘려 현지 취업과 지방으로의 U턴·I턴 전직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여성과 장애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한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그를 통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활력은 보람을 키운다. 각기 다른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는 지방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성공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이 소유한 자산을 재검토하여 보물로 바꾸어 간다. 일본만이 가능한 일, 지방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재검토하고 뜨거운 정열과 같은 가치관·뜻을 지닌 사람들을 더욱 늘리는 것이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얻은 오늘 회합은 매우 의의가 있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2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참가 지방정부	한국 : 충청남도 일본 : 야마가타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 고치현, 나라현, 나라현 나라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강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강사 연설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 인구 구조로 본 경고’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2010년 국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풀타임 취업자 비율은 39%, 파트타임 취업자 비율은 8%로 국민의 절반은 일하지 않는다. 실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처럼 구직자가 많다는 오해가 많아, 고용 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일 제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실업자 비율은 2~3%로 매우 낮아 전원에게 일을 제공해도 노동 인구는 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 정책을 실업 대책에서 취업자 수 증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충청남도의 취업자율 약 65%와 비교해도 일본의 취업자율은 낮고 국제 경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220만명 감소하나, 약 50년 후까지 이 감소를 막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취업자 수 감소와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2배로 늘어났다. 리먼 사태로 잠시 침체됐지만 바로 회복하여 현재 일본 수출액은 과거 최고 수준이다.

한편, 소매 판매액은 전혀 늘지 않았다. 현역 세대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면서 기업이 내는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이 줄면 당연히 현역 세대를 겨냥한 상품 매출은 떨어진다. 일본 현역 세대 인구의 정점은 1995년으로 그 이후 소매 판매액은 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저한 감소 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로는 65세 이상 취업자가 많다는 것, 경제력을 가진 고령자용 상품 개발과 관광 산업에 주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전업주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촉진을 포함해 관광과 농업, 지역 생산·지역 소비품에 대한 고령자의 소비지출이 필요하다.

일본은 세계가 지금부터 직면할 ‘인구 감소’ 상황을 가장 빨리 경험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의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일본 만큼 높은 진가를 발휘할 국가는 없을 것이다.



참가 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 개요



일본/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은 제조업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전개 구상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과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는 종합 상담 창구의 정비, 대학과 현내 기업과의 협동 촉진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 분야, 성장 기대 분야의 산업 집적·촉진과 전략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새로운 핵심 산업 창조에 힘쓰고 있다.

리먼 사태 이후 얼어붙은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진흥 시책과 일체가 된 안정 고용 창출과 누구나 취업 가능한 고용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은 방재·감제 기능의 충실·강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집적,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 기회 창출, 생활을 지키는 기반 정비 등 4개 기본 목표를 내걸고 지진과 해일에 강한 사회 기반 정비, 현 특산품 브랜드화, 풍부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교통·정보 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에 임하고 있다.

향후 연안·도시 지역의 리노베이션, 내륙·돈대부의 이노베이션, 연안·도시 지역과 내륙·돈대부가 서로 연계 보완하는 다층적 지역 연계 축의 형성이라는 3개 전략에 입각한 ‘안전·안심, 매력 있는 “후지의 고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은 지금까지 쌓아 온 자매 우호 관계(미국 플로리다주, 스페인 갈리시아주)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지방정부와 주로 경제 분야의 제휴 강화를 위한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관광 분야의 교류 촉진,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인재 육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무역발전국과 ‘무역·경제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각서’를 체결(2013년 7월)한 이후, 홍콩 푸드 엑스포에 출전하고 사절단을 받아들이는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고치현

고치현은 2009년 4월부터 산업 진흥 계획을 시작했다. 현행 제2기 계획 중 ‘산업 성장 전략’은 농업·임업·수산업·상공업·관광업 등 5개 산업 분야와 전문 분야를 초월한 연계가 요구되는 ‘연계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업 ‘지역 액션 플랜’에서는 2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기초를 다져 현외 시장에 진출 2)산업 간 연계 강화 3)기반 강화로 지역력 향상 4)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 5)산업 인재 육성 6)이민 촉진을 통한 활력 증진 등 6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나라시

나라시에서는 ‘나라만이 지닌’ 매력적인 관광 자원 등의 기반 정비를 목표로, 역사적 거리가 훼손되고 있는 ‘나라마치’의 빈집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라마치 가옥 뱅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나라등화회(燈花会)·나라루리에(瑠璃絵) 등 관광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조성하여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창업 지원에도 주력하여 본격적인 창업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중심부에 개설한 ‘기랴토나라(기업인 지원 시설)’의 일부를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장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역 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고용 여건의 악화를 경험했다.

목표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이다. 국내·해외 기업 유치, 수소 연료 자동차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산업 단지 조성 등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시책으로서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사업,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청년 및 시니어 창업·창직 사업 등에 임하고 있다.



일본/이카루가초

이카루가초는 관광협회, 상공회 등과 제휴하여 각종 사업에 임하고 있다.

이카루가초는 역사적 품취 유지 향상 계획을 책정하고 새로운 손님 맞이를 위한 거리 정비와 지역 걷기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상가는 빈 점포·공간을 활용한 ‘조라쿠이치(常楽市)’를 개최하고 있다. 상공회는 ‘어른 수학여행 프로그램 & 이카루가초 스테이 개발사업’을 테마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이카루가초의 이해를 심화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상공회 청년부에서는 ‘나시주레(배 젤리)’ 등 특산품 개발에 힘쓰고 다쓰타가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다쓰타 튀김’의 브랜드화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나라현

나라현은 3대 도시권에 속해 있으나, 법인 수입이 낮고 일자리가 현 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 관광객은 많지만 관광 소비는 저조하다. 이는 성장기에 오사카의 베드타운으로 발전해, 하수도와 오사카 방면 도로 정비가 선행된 것이 한 이유이다. 즉, 나라현 내에서 내발적 산업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가 불완전한 현도 구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현에서는 나라현 도로의 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정비해야 할 도로의 방향성과 정비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기업 입지와 관광 진흥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총괄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한국 충청남도과 일본의 각 참가 현에 공통된 점은 유치형으로 거대 제조 거점은 물론 지역 자원을 살린 내발형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남도는 서울 대도시권과 고속도로로 직결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공장 유치만으로는 생활권이 서울 도시권에 남게 되어 소비가 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거나 지역으로 이주해 일할 사람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는 오사카의 통근·통학권에 있는 나라현과도 공통된다. 나라현 소비의 대부분이 오사카에서 발생하여 나라현 경제 진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관광과 농업 등의 자원을 살려 현지 소비를 늘리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발형 산업 진흥의 선구자는 야마가타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 고치현이다. 야마가타현은 야마가타대학 공학부와 제휴하여 유기 EL 제품화 등 새로운 산업의 싹을 키우고 있다. 와카야마현과 고치현은 거대 농업지대이다. 농산물을 가공해 현외에서 판매하여 보다 많은 부가 가치를 지역에 되돌리는 지산외상(地産外商)에 대해 논의했다. 와카야마현은 민간 벤처를 활용, 고치현은 현이 주도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하이테크 등 거대 산업을 가진 시즈오카현은 광학, 의료, 복지 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또 매장 문화제가 많은 지방의 토지 개발, 쓰나미 대책으로서 마을의 고지대 이전 등 토지 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 일본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주민 합의를 중시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각 지역에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흥미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만들어 각 지역을 방문해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그룹 토의



기념품 증정

웰컴 리셉션



